



양돈농가들의 부채 실태와 바람

원리금 상환 3년간 유예와 이자율 3% 적용해야

양돈농가 부채 실태와 해결방안

1. 양돈농가들의 부채실태

가. 전업농가

IMF의 크나큰 흐름과 맞물려 우리 축산, 특히 양돈업에 종사하는 이들의 어려움은 뭐라 말로 표현할 수 없다. 비육돈 1두(100kg) 생산비가 212,782원인데 9월 30일 실제 판매 가격은 (지육 2,100원일때 기준) 145,123원으로 사료비가 10%안밖으로 인하한 것을 감안하더라도 40,000원 안밖의 손실을 감수하고 행여나 가격이 올라 조금 있으면 이 고생을 보상해 주겠지 하는 마음으로 견디고 있다.

10년 이상 천직으로 알고 있는 생업과 정책자금 및 운영자금으로 가뜩이나 한짐을 지고 있는 상태에서 망설이다.

'96년도 이후에 시설투자한 양돈농가의 어려움은 더더욱이 안타깝다. 전업규모 1농가당 평균 부채액이 모돈 1두당 2,000,000만원에 이른다는 통계와 또한 부족한 운영자금으로 인하여 설비투자한 시설의 가동률이 형편없는 농가도 상당수에 이르고 있다. 특히나 정책자금의 대출을 위해 상호연대를 하여 대출하였던 농가중 여러농가가 경영압박을 견디지 못하고 도산하였고 이에 서로 상호연대한 채무를 떠안고 변제해야 하는 이중의 어려움을 겪고 있는 실정이다.

이러저러한 양돈업의 현 상태를 알고 있듯이 각 사료회사에서는 외상판매대금의 회전일을 90일에서 60일로, 60일에서 30일로, 30일에서 현금으로 요구하고 있어 사면초가(四面楚歌)의 위기에 몰려있는 것이 양돈농가의 현주소이다.



김 건 태
(본회 부회장)

나. 부업농가

우리 주위를 살펴보면 조금은 느긋한 상태의 양돈농가가 있다.



전업규모 1농가당 평균 부채액이 모든 1두당 2,000,000원에 이른다는 통계와 또한 부족한 운영자금으로 인하여 설비투자한 시설의 가동률이 형편없는 농가도 상당수에 이르고 있다.

정부가 국제경쟁력을 갖추기 위해 전업규모로 확대시켜야 국제경쟁력에서 살아남는다 하며 부추기는 것도 아랑곳하지 않고 소신껏 해오신 부업양돈농가들은 조금은 덜 다급한 상황으로 보고 있지만, 노후화된 시설이 수명을 다하여 용접기를 하루도 사용하지 않으면 안된다는 농가들의 하소연과, 50~60대 후반의 나이에 시설을 투자하기도, 생업을 포기하기도 어려운 난감한 상태에 이르고 있다.

현재 투자된 자금중 농가가 도태됨으로써의 정부 손실예상액

양돈농가 10% 도태시	1,621억원
양돈농가 20% 도태시	3,424억원
양돈농가 30% 도태시	4,863억원

향 후 10,000호 안밖의 양돈

농가가 살아남을 것이라는 예상을 하고 있고, 이에 현재 18,500여호의 농가중 8,500호가 도태될 것으로 전망하고 있어 예상되는 농가의 도산이 이어질때 엄청난 국가적인 손실이 이어질 것이다.

2. 해결방안

가. 정책적인 방안

현재 가격 및 경기상황으로 볼때 원리금 상환이 계획대로 이루어지는 경우 양돈농가의 도산은 급속히 이어질 전망이므로 이에 대한 대안으로

① 원리금 상환의 3년간 유예(이자 납입 포함)와 이자율의

최저금리인 3% 적용

② 분뇨처리시설은 생산성과는 별도로 비용부분이므로 현재 50%의 보조부문을 70%까지 올려주고 이자율은 무이자로 해야한다.

③ 농가 스스로도 생산성 향상으로 모든 1두당 비육돈 22두 출하를 목표로 하여 스스로 경쟁력을 갖추는데 온 힘을 경주 하여야겠다.

'99년도부터 정부에서 농축산물 유통분야에 많은 관심과 투자를 계획하고 있으므로 소비자가 원하는 좋은 품질의 돈육 생산만이 앞으로 우리의 살아 나아갈 길이다. **養豚**



양돈농가 부채 실태와 해결방안



최 희 태
(본회 광주·전남 도협의회장)

양돈농가들의 부채 실태와 바람

농가부채 장기저리자금으로 전환해야

우 리나라 경제와 같이 우리의 양돈산업이 어찌되어 이 지경에 까지 이르렀는지 양돈인의 한 사람으로써 뭐라 말하기 심히 부끄럽기까지 하다. 한국의 양돈산업 정책 또한 갈대인생과 같이 종잡기가 심히 힘든 이 시점에 IMF체제와 더불어 우리의 양돈산업이 벼랑끝으로 추락하지 않는가 하는 불안감이 앞서 요즘의 우리 양돈인들은 무거운 짐을 지고 가시밭길을 걷는 심정이다.

불과 2년전만 해도 한국의 돼지 사육두수는 650만두 이므로 일본 수출을 위해서는 최소한 850만두가 되어야 한다고 축사시설 자금이며 운영자금을 줄 때가 엇그제 같은데 이제는 사상 유례없는 780만두로 양돈산업의 대란설이 대두되고, 돈가는 연일 폭락하는 소리만 들리니 우리 양돈농가들은 의욕을 상실하고 있으며 돼지를 처분하는 농가는 갈수록 늘어만 가고 있으니 농가부채 또한 눈덩이 같이 커져만 가는 것이 지금의 우리 양돈산업의 현주소인것 같다.

이러한 시점에서 정부는 우리 양돈농가들에게 진정한 핑크빛 청사진을 제시하여 국제 경쟁력에서 대한민국의 축산이 살아남기 위해서는 외국의 경우와 같이 모든 농가부채를 장기저리자금으로 하여야 할 것이며 또한 축종중에서 유일하게 3억불 수출을 한 양돈산업을 수출전략 산업으로 정착시켜야 할 것이다.

대통령께서는 공약사업으로 제시한 농가부채 탕감을 대기업 중심으로 할 것이 아니라 500만 농업인에게도 하루빨리 시행하시어 우리 농민들이 안심하고 생업에 종사할 수 있도록 정부의 적극적인 배려가 있어야 할 것으로 안다. **養豚**

양돈 농가 대출이 화근



특집

양돈농가 부채 실태와 해결방안

92년 우루과이 협상으로 국제 경쟁력 제고라는 명분에 농민들을 살리고 국가 일차산업 기반 구축을 위하여 정부는 사료와 축산 기자재를 수입하는데에 농특세 7.5~10%를 받아 농어촌 발전에 파격적으로 장기 계획하에 92~98년 현재까지 여러모로 대출한 돈이 57조원이나 된다고 모 일간지 기사를 본적이 있다. 그 중 1조6천억원을 양돈 농가가 대출해서 빚진 죄인 되는 줄 모르고 살아보겠다는 희망속에 투자했는데 오늘의 결과는 과잉생산, 소비 부진, 사료값·기자재 등이 IMF로 대폭 오르므로 농가는 벼랑에 몰려 있으며 근래에는 IMF전에도 이렇게 내리면 큰일이라고들 했던 돼지 시세는 떨어졌어도 누구하나 부추일자는 없다.

이래서 농가는 생물들을 죽일 수 없어 일반 대출, 사채 등을 추가로 얻어 사료사서 먹이고 돼지들을 기르는데 전념했으나 처음 대출했던 농가 정책자금 상환기일이 되어도 갚지 못하고 아우성이 다.

문제는 자유경매 재거래 생산원가를 무시한 제도로는 살아남을 길이 없게 되었고, 농림부에서는 농가가 손해 많이 보고 길거리에 쫓겨나기를 기다리는지 사육두수를 줄여야 한다는 대책은 없다. 오히려 수출을 내세워 출하 도축체중 등급을 올려 놓았으므로 과잉된 상태의 농가들의 손해는 더욱 큰 상태다. 한편에서는 늘리고 한편에서는 비축하는 상태로 왔으나 이래선 안된다. 1조6천억이란 대출원금은 무엇으로 회수할 것인가? 못 갚는 실정에 처한 농가의 상황을 생각해 보았는가?

일반 대출과 사채 이용 농가도 많고 돼지를 버리고 도망을 하면 몰라도 이런 위기를 버틸 장사 없다. 정부는 대출금 상환을 무기한 연기해야 할 것이며, 공판장 경매 제도를 생산 원가 이하로 거래가 이루어지는 걸 고쳐야 할 것이다. 어느 공산품이나 상거래 도의는 이윤 없이 봉사만 하라는 것은 있을 수 없다. 농가도 가정을 갖고 사는 작은 사회며 나라라는 걸 알기 바란다. IMF시기에 알맞은 생산을 하도록 지도 홍보해야 할 것이다. 어려운 난국에 개인, 작은 사회, 나라 형편인들 오죽 하겠느냐 말이다. **養豚**



박 동 래
(본회 전 부천지부장)